

뉴스 뒤편에 숨겨진 얼굴들



cpbc

이지혜 기자



40년 가까이 노숙인들의 치아를 무료로 진료해준 김정식 치과의사. 그는 가수 김동률씨의 아버지이지만 쉽게 아들 자랑을 하지 않는다.

기사에 담을 수 있는 핵심적인 장면만 건져 올린 채 그 자리를 떠난다. 기사의 ‘야마’가 정해지면 그 외의 이야기들은 손가락 사이로 흘러나갔다. 취재 수첩을 덮고, 카메라 캡을 닫는 일은 무심하고도 능숙했다. 그러나 삶은 그렇게 단편으로만 구성되지 않았다. 인터뷰이의 한 문장, 한숨, 손짓 안에는 기사 한 줄로는 담기 어려운 서사가 배어 있었다.

인터뷰이는 말이 많았다. 삶은 지속적인 흐름 속에 이어지는 여정이기에 모든 행동에는 이유와 동기, 과정과 목표가 있다. 어느 지점쯤 가장 짙한 이야기가 나올 무렵, 한 사람을 만나 그의 삶을 듣는다.

그가 들려준 삶의 이야기는 때로는 반향을, 때로는 비판을, 또 때로는 사회에 섰던 영향력을 남겼다.

종교 언론사 기자로 20년을 살아왔다. 해를 거듭할수록 주제에 따른 장면과 언어를 채집하는 데는 익숙하고 능숙해졌다. 몸담고 있는 종교 언론사의 매체 특성상, 삶에서 선하고 밝은 혹은 역경과 고통을 잘 승화시킨 이들을 집중해서 조명했다. 고통을 땀감 삼아 사랑의 불을 지펴내는 이들이었다. 오랜 시간 갈 곳 없는 출소자에게 방 한 칸을 내어준 사람, 본인은 결혼할 마음이 없으면서 난민 자녀들을 품에 안은 사람, 햇빛 한 점 들지 않는 공간에서 살아가는 이들의 잠자리를

걱정하는 사람들을 만나왔다. 그리고 37년 동안 서울 영등포 쪽방촌에 있는 요셉 의원에서 노숙인과 알코올 중독자들을 위해 무료 치과 진료를 해온 김정식 치과의사도 그중 한 명이었다. 그는 가수 김동률 씨의 아버지였다.

팔순의 김정식 선생은 37년 봉사 세월을 이야기하며 “희생이라는 단어는 생각조차 안 해봤다”고 했다. 그에겐 잇몸으로만 죽을 넘기던 이들이 틀니를 맞춰 환하게 웃으며 돌아가는 순간이 가장 큰 기쁨이었다. 진료용 장비조차 제대로 갖춰지지 않았던 초창기, 군대용 접이식 의자에 앉아 이들을 돌봤던 그는, 동료였던 선우경식 원장이 떠난 후에도 그 뜻을 지키고자 진료실을 지켰다. 그의 이야기를 들으며 이 시대의 성자란 무엇인가를 되물게 됐다. 환자들에게 밥을 씹어 먹을 수 있는 삶의 기본을 되찾아주는 일, 그는 그조차도 당연하게 여겼다. 그가 지켜내고 있는 삶의 기본은 어떤 뉴스보다도 묵직했고, 깊은 울림을 남겼다. 가수 김동률 씨의 팬들이 기사를 퍼 날라줬다.

그들의 이야기를 따라가다 보면, 사랑은 또 사랑을 낳고, 나눔은 또 나눔을 낳았다. 그 선순환의 고리를 보면서 선행과 기부를 하지 않았는데도 대리만족할 수 있는 특혜(?)를 입었다고 고백한다. 다큐멘터리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지금껏 취재해온 취재원들의 모습이 김장하 어르신들의 겸손한 걸음걸이에 모두 담겼다고 생

각했다.

모든 선행과 나눔의 첫 시작을 찾아보면, 항상 개인적인 아픔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새로운 좋은 일을 시작하게 되는 전화위복의 계기로 연결이 됐다. 아픔의 깊이가 크고 넓을수록 그 선행은 감동의 빛을 더했다. 아들을 잃은 아버지가 아들이름으로 장학회를 운영하고, 학교폭력으로 자녀를 잃은 교사가 피해자와 연대해 캠페인을 시작하는 이들이 그랬다.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경란 씨도 그런 사람 중 하나다. 30년 전, 국수를 설탕에 비벼 먹던 홀몸 노인을 보고 시작한 반찬 나눔은 지금까지 300명이 넘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졌다. 치매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지체장애 아버지, 가정폭력을 피해 떠돌다 암에 걸린 청년, 간 경화 투병 중이던 무연고 남성까지. 그녀는 반찬을 손수 만들어 매주 5~10가정에 전달하고, 때로는 빨래와 청소까지 마다하지 않았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람들이었지만 자신의 손맛으로 이웃을 돌보는 일을 멈추지 않았다. 끊임없이 음식재료를 사다 데치고 무친 반찬들은 통에 담겨 이집저집으로 전해졌다. 어려운 이웃들은 그의 정성스런 음식을 먹고 살아갈 힘을 냈고, 기운을 차렸다. 이들 역시 작게나마 되갚음의 손길을 내밀었다.

엄청난 선행을 하면서도 자신을 드러내기를 극도로 꺼렸던 이들도 있었다. 성매매 집결지에서 탈출하려는 여성들을 위



김정식 치과의사가 요셉의원에서 행려인에게 치아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모습.

해 오랜 시간 헌신해 온 수도자, 활동가, 상담가, 자원봉사자들이다. 파주의 한 성매매 집결지가 철거되던 날, 전신주에 올라가 저항하던 여성의 모습을 뉴스 화면으로 봤고, 취재를 시작했다. 많은 언론사의 카메라는 전신주에 올라간 여성의 모습을 향했다.

성매매 업소에서 탈출한 성매매 피해 여성과 성매매 피해 여성들을 10년 넘게 만나온 봉사자를 어렵게 섭외했다. 암 수술이 시급한 성매매 피해 여성에게 병원을 연결해주고, 맨몸으로 탈출한 여성들의 주거를 마련해주고, 추운 밤 간식과 핫팩을 쥐여주는 그들의 손길은 조용하고 부지런했다. 봉사자들이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는 순간 여성들이 도움을 거절할 수 있어 인터뷰는 가당치도 않았다. 그저

조용히 그들 곁에서 한참을 머물렀다.

성매매 집결지 사이에 있는 수도자의 허름한 방, 한기 가득한 방에서 살아가는 수녀들의 모습에서 차마 ‘왜’라는 질문조차 할 수 없었다. 성매매 집결지에 허름한 집에서 사는 이들의, 머뭇은 성매매 여성들의 생존을 지지하고 존중하는 행동이었다. 그날, 성매매 집결지 수도자의 방에 들어섰을 때, 처음으로 누군가의 삶 앞에 머무는 일이 기사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달았다.

이렇게 누군가는 치과 치료를, 누군가는 밥 한 끼를, 또 누군가는 탈출구 없는 삶에서 빠져나올 작은 손을 내밀었다. 그 손은 언제나 조용히, 그러나 변함없이 움직였다. 그 조용한 손들로 이뤄진 ‘선택



성매매의 굴레에서 벗어나 새 삶을 사는 한 여성을 어렵사리 만났다. 그는 여전히 누군가에 의해 사고파는 대상으로 어두운 삶을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세상에 빛과 희망이 있음을 알려주고자 인터뷰에 응했다. 12년간 성매매에 몸 담았던 박모 씨의 손.

공동체’는 사회를 떠받치고 있었다.

언론은 무엇이든 빨리 기록하고, 빨리 떠나보낸다. 매일같이 밀려 들어오는 뉴스들이 대기하고 있었으므로, 뉴스 거리들이 잊혀져야 또 다른 뉴스 거리들이 밀려들어왔으므로, 온라인에서 사랑이나 용서, 나눔이나 화해, 평화 같은 단어들은 뉴스가 되지 못했다. 온라인 뉴스는 ‘속보’라는 단어의 단가를 높게 쳐 줬으며, 화해와 평화는 그저 일상 언어에 불과했다. 죽음과 재난, 화재 같은 대형 사고를 전하는 일에는 능숙했다.

모든 행동에 빛과 어둠이 있듯, 기자로 살아온 20년 세월도 빛과 어둠이 씨줄과 날줄로 엮여 있음을 고백하게 된다. 기자라는 직업은 앞뒤 맥락 없이 전화를 걸

어 이것저것 질문하고, 답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줬고, 알 권리는 기자라는 직업의 어깨를 한껏 올려주는 수단이 됐다. 어느 순간, 누군가를 앞에 두고 준비되지 않은 질문들을 던질 때면 내가 뭐라고, 이들은 자신의 삶에서 깊은 내면을 내게 보여주나 싶었던 순간도 있었다.

인터뷰이들의 감정과 언어들이 곧이 곧대로 지면에 얹혀지기는 어려웠다. 전체 흐름의 맥락과 인터뷰 기사 문단의 앞뒤에 맞게 재배치되었으며, 기자의 언어에 갇히기도 했음을 이제야 알겠다. 데스크가 누구냐에 따라 문장의 무게라는 것도, 강조되는 어휘도 달라졌다.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을 어느 문장 앞에서도 겸손하지 못했음을 돌아보게 된다. ‘그런데, 왜, 계속, 도대체’라는 어리석은 물음을



좌) 김경란 씨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 만든 반찬들.
우) 서울 광진구 자양동에 사는 김경란 씨는 30년 전 국수를 설탕에 비벼먹는 홀몸 어르신을 보고 반찬 나눔 봉사를 시작했다.

던짐으로써 본질에 가까운 답변을 건져 올리고 싶었던 젊은 날들의 의도 역시, 어찌면 젊은 기자로서 기교였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불혹이 들어서야 든다. 진실하게 사회의 현상과 문제를 담아내고, 진정성 있는 발언과 행동을 드러내는 기자의 일에도 성찰과 겸손이 깃들어야 함을 느낀다. 대중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가장 먼저 뉴스가 되는 대상자를 접촉하는 언론인이라면 단순히 ‘질문하는 사람’을 넘어서 ‘그 답을 왜곡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문장을 손바닥만 한 내 작은 일기장에 적고 싶다.

기자는 진실을 좇는 사람이지만, 그보다 먼저 누군가의 삶을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듣는 사람이어야 한다고 믿는다. 현장에 있다고 모두가 좋은 기자가 되는 것

은 아니다. 삶의 곁을 헤아리며 그 자리에 오래 머무는 태도가 좋은 기사를 만든다.

기자는 사람을 통해 성장한다. 만나온 사람들, 앞으로 만나게 될 사람들 덕분에 깊어졌고, 깊어진다. 누구의 어떤 이야기를 얼마나 진심으로 듣고, 어떻게 품고 전했는지, 그리고 선하고 밝은 것을 삶으로 옮기는 데 얼마나 힘을 보탰는지에 따라 기자의 그릇은 달라진다고 믿는다. 🍷

“뉴스의 임무는 사회가 저지른 최악의 실패를 날마다 상기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부심과 회복력, 희망을 갖출 수 있도록 교육하고 일러주는 것도 포함된다.”

— 알랭 드 보통, <뉴스의 시대>

cpbc 이지혜 기자